

포복절도할 웃음 폭탄·알콩달콩 사랑 이야기...연말, 광주에 코믹 연극이 몰려온다



‘바람난 삼대’

유쾌하거나 혹은 로맨틱하거나



‘뉴 보잉 보잉 1탄’

‘바람난 삼대’ ‘라이어 1’ ‘뉴 보잉 보잉 1탄’ ‘엽기적인 그녀’ 잇따라 무대에

시중 일관 포복절도할 웃음 폭탄을 선사하는 코믹 연극과 알콩달콩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 로맨틱 연극이 공연된다.

오는 28일까지 총장르 기본종은 극장에서 상연되는 ‘바람난 삼대’는 20대, 50대, 70대의 삼색 사랑을 유쾌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할아버지는 사별을, 아버지는 이혼을 했다. 아들은 미혼이다. 한 아파트에 사는 삼대는 어느날 일이 있어 모두 집을 비우게 된다. 이 틈을 타 각자 사랑하는 여인을 집으로 초대, 세 커플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면서 소동이 벌어진다.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배우들의 1인 3역이다. 단 무명의 남배우가 삼대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관객들을 유쾌하게 만든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변신을 거듭하는 배우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연극 보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제12회 2인극 페스티벌에서 초연된 작품으로 국내 굴지의 극단 ‘자이무’ 민복기 대표가 직접 희곡을 쓰고 연출, 완성도를 높였다. 티켓 가격 전석 3만원. 문의 062-374-3343.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국민 연극 ‘라이어 1’도 공연된다. 18~25일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지난 1996년 대학로에서 국내 초연된 ‘라이어 1’

은 지금까지 2만5000회 공연, 350만명이 관람한 메가톤급 히트작으로 주진모 주연으로 국내에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유명 희곡 작가 레이 쿨리의 작품인 ‘라이어’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리고 있다. 메리와 바바라 두명의 아내와 두집 살림을 하는 택시 기사 존이 간단한 강도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경찰이 사건 수사를 맡으면서 존은 두명의 아내를 들릴까 거짓말을 일삼게 된다. 티켓 가격 3만5000원. 문의 1588-0766.

또 다른 코믹 연극 ‘뉴 보잉 보잉 1탄’도 광주를 찾는다. 28일까지 5·18 기념문화관.

주인공은 3명의 여인과 동시에 약혼을 한 남자 ‘성기’다. 각기 다른 항공사의 각기 다른 시간표를 가진 3명의 스텝어디스와 약혼한 성기는 1명이 외국으로 떠나면 또 다른 약혼녀가 돌아오는 방식으로 깨달 같은 연애를 해나간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세명의 애인이 한꺼번에 집에 들이닥치게 되면서 ‘대라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프랑스 극작가 마르코 카를레티의 원작 ‘보잉 보잉’을 변안한 작품으로 이미 10년간 장기공연중인 대학로의 대표 코믹 연극이다. 티켓 가격 3만5000

원. 문의 1688-3820.

로맨틱 코미디 ‘엽기적인 그녀’는 차태현·전지현이 주연을 맡았던 동명의 영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오는 28일까지 우체국보훈회관 기본종은 극장.

견우는 집으로 가는 지하실 안에서 만취한 그녀를 보게 되고, 그녀와의 엽기적인 만남이 시작된다. 영화 속에서 그녀가 쓰는 시나리오가 연극에서는 웹툰으로 변모하고 배우들이 펼치는 마음과 춤이 즐거움을 더한다. 무대세트의 변화도 눈길을 끈다.

재미있는 건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 ‘분신’이라는 존재다. 엽기적이고 와이드한 그녀 대신 여성적이고 순종적인 여자와 소심하고 어리숙한 견우 대신 남성적이고 마초적인 남자가 두 사람의 속마음을 대변한다. 전석 3만원. 문의062-374-3304.

그밖에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내년 1월18일까지 공연되는 ‘그녀를 믿지 마세요’는 알콩달콩 사랑을 엮어가는 청춘 남녀의 이야기를 그린 코믹 로맨스 연극이다.

가상의 연애상담회사를 배경으로 사랑에 빠졌지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말 한 마디 못하는 준희. 연극은 준희가 자신의 짝사랑 차명석에게 다가가고자 상담소를 찾으면서 시작된다. 문의 062-360-8437.

한편 모든 공연에는 다양한 할인혜택이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꽃숲에서 놀다



‘즐거운 숲’

김해성 초대전 ‘즐거운 숲’ ... 1월 4일까지 전남대병원 갤러리

꽃과 어울려 춤을 춘다. 새들과 함께 노래를 부른다. 자연 속 모든 것이 친구가 된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바로 그곳이 유토피아이다.

전남대병원 갤러리는 내년 1월4일까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밝은 색채로 표현하고 있는 서양화가 김해성씨를 초대해 ‘즐거운 숲’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활짝 핀 꽃과 푸른 나무, 드넓은 들녘, 꽃을 타고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 그리고 한없이 평화로운 인간과 말, 사슴, 새 등을 화사한 색채로 표현한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김씨는 자연과 동화하며 사는 인간들의 꿈을

화폭에 몽환적으로 담고 있다. 누구나 꿈을 꾸지만 너무나도 아득한 풍경들이다. 하지만 강렬한 색감과 발랄한 리듬감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미지의 세계로 안내한다.

특히 중후한 색으로 처리한 배경과 달리 밝고, 가벼운 색채를 활용한 감성적인 색감 변화가 시선을 잡아끈다. 역동적인 선과 형태, 행위표현 등은 한편의 시처럼 읽히기도 한다.

조선대 미술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한 김씨는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장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활동했으며, 현재 한국미협 이사, ‘선과 색’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220-5092.

/김정민기자kki@kwangju.co.kr

풍경을 담다



‘봄의 소리’

서양화가 김소영 개인전 19~30일 자미갤러리

서양화가 김소영씨의 개인전이 19일부터 30일까지 자미갤러리에서 열린다.

김씨는 이번 전시에서 유화 작품과 수채화 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일상 속 정물을 그려온 김씨는 이번 전시에서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그가 표현해낸 풍경은 맑은 여백과 비율을 담고 있다.

객관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표현한 ‘환희’ ‘봄의 소리’ ‘눈덮인 마을’ ‘만추’ ‘영산강의 봄’ 등 작

품은 중간적인 색채를 많이 사용해 풍경의 따뜻함을 표현했다. 타기여행이 가져다 준 영감을 모티브로 삼은 ‘파죽칼레’ ‘셀츠크마을’ ‘이슬람사원의 석양’ 등에서는 타기가 안겨주는 독특한 색감을 만날 수 있다.

김씨는 호남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대한민국 수채화 전람회 특선, 광주시미술대전 특선, 무등미술대전 특선 등 다수 공모전에서 입상했다. /김정민기자kki@kwangju.co.kr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 KBS 국악한마당 ‘국악신동’ 출연

방송은 20일 오전 11시30분

남도 국악을 알리는 홍보사절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이 지상파 국악프로그램에 출연한다. <사진>

어린이국악단은 KBS-1TV 국악한마당 국악신동 코너에서 가이금 병창 ‘춘하추동’과 타악퍼포먼스 ‘세계로 희망으로’를 선보인다. 방송 예정일은 오는 20일 오전 11시30분이다.

‘춘하추동’은 사계절을 경쾌하게 노래한 신민요 곡으로 김가현(화순제일초 4), 박지수(구례여중 1) 등 단원 7명이 공연한다.

이어 타악과 무용이 함께하는 타악 퍼포먼스 ‘세계로 희망으로’는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꿈이 세계를 향해 펼쳐나가기에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전성현(목포 애향초 5) 등 18명의 단원이 흥겨운 연희 춤극을 펼친다.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은 지난 2005년 7월에 도내 초등학교 60여명으로 구성해 창단했으며, 지금까지 110여 차례 정기·초정공연을 진행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 오현철·김홍식·장윤호

수필 임병식

제 37회 전남문학상 수상

전남문인협회(회장 박정동)가 주최하는 제 37회 전남문학상에서 부문 오현철, 김홍식, 장윤호 시인과 수필 부문 임병식 수필가가 선정됐다.

오현철 시인은 해남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원문문인으로, 남도문학의 발전에 기여했고 김홍식 시인 역시 나주 지역에서 활발한 창작활동을 전개해온 중견 문인이다. 장윤호 시인은 전남문인협회 부회장과 선거 관리 총책을 맡아 문단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임병식 수필가는 한국수필가협회장을 맡는 등 수필 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소설, 아동, 시조, 평론 부문은 추천자가 없어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한편 전남문인협회가 주관해 치러진 여성백일장에서는 영광 출신 차령득 씨가 장원을 차지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연말 송년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파죽지음 빛깔 5회 연속 선정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연회장 가족모임 세미나 상견례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형 회의장
- 300가지 외관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너스
- 맞춤형 출장도시락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대원빌딩 1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12월 24일(수) 무박2일 기차여행	12월 31일(수) 무박2일 기차여행 (무궁화호)	12월 31일(수) 무박2일 기차여행 (광주송정출발)	12월 31일(수) 무박2일 기차여행 (광주송정출발)	1월 8일, 15일, 29일 1박2일 여행 (특요일출발)
남이섬·춘천	정동진 새해일출	KTX로 떠나는 새해일출	KTX로 떠나는 새해일출	우리의 땅 대마도
시간 일 정	시간 일 정	시간 일 정	시간 일 정	요일 시간 일 정
11:50 광주역 집결 후 출발	22:00 광주송정역 집결 후 출발	21:00 광주역 집결 후 출발	21:10 광주송정역 집결 후 출발	(목) 05:00 광주 집결지 집결 후 출발
06:27 기평역 도착 후 출발	06:53 정동진역 도착 후 출발	23:24 서대전역 도착 후 출발	23:32 서대전역 도착 후 출발	(목) 09:30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출발
07:00 남이섬/김유정 문학촌/춘천 소양강댐/춘천 명동 먹거리 자유관광	07:00 정동진일출/천국동굴/추암초대바위/목호항어시장 자유관광	04:30 낙산사일출/휴휴임/주문진어시장/정동진 관광	04:30 낙산사일출/휴휴임/주문진어시장/정동진 관광	1/15 10:40 한국전망대/미우다하마/원통사/에보시타케 전망대/와타즈미 신사 관광 후 호텔로 이동
16:18 춘천역 출발	15:30 동해역 출발	18:56 서대전역 출발	19:25 서대전역 출발	(목) 18:00 이완음매곡비/수선사/역해운주결혼 불축비/조선통신사비/고려문
22:14 광주역 도착	22:50 광주송정역 도착	22:00 광주역 도착	21:09 광주송정역 도착	18:10 대마도 이즈하라항 출발
성인 85,000원~ 소아 80,000원~	성인/경노/청소년 115,000원~ 소아 83,000원~	성인/청소년 95,000원~ 경노 93,000원~	성인/청소년 95,000원~ 경노 93,000원~	18:10 부산 도착 후 광주로 출발
				광주출발조건 20명이상 / 1인 249,000원 부산출발조건 2명이상 / 1인 199,000원